

## 프랑스 영상문화 <제 8 차시>

# 신화 서사의 영상화: 『흑인 오르페 Orfeu Negro』에 나타난 신화적 상징 해석 (2)

2.2. 인물의 죽음과 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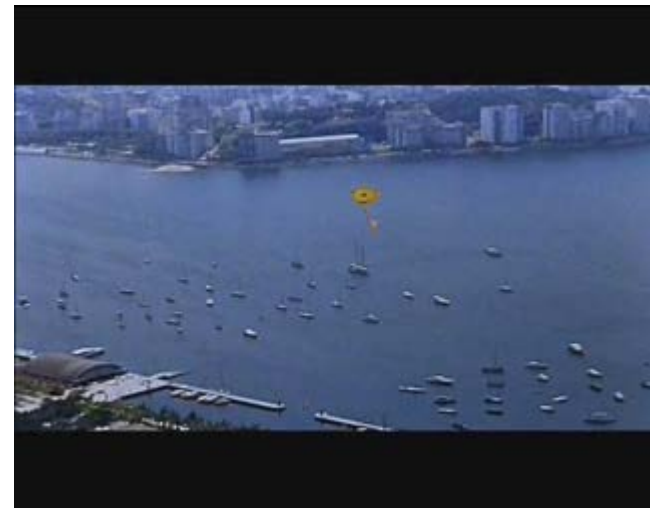
2.3. 인물과 서사의 확장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김 종 기

## 2.2. 인물의 죽음과 암시

오르페와 유리디스의 죽음, 그러니까 삶의 유한성은 영화 전체를 통해 반복적인 복선으로 암시되어 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0:04:00)



오프닝 시퀀스에서 제카가 연을 날린다. 태양 연이다. 그러나 연줄은 끊어지고 태양 연은 스물스물 가라앉는다. 노랫말도 이 땅의 삶과 사랑이 덧없으며 유한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 2.2. 인물의 죽음과 암시

영화가 진행되면서 오르페와 태양과의 관계가 서서히 제시되고, 결국 미라의 질투에 의해서 오르페가 태양 연이 가라앉았던 그 언덕 아래로 떨어져 죽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때,

관객은 오프닝 시퀀스에서 가라앉았던 태양 연이 오르페의 죽음을 암시한 복선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1)

1) 서사구성의 관점에서 이를 “대용 기능”이라 한다. 이 기능에 의해 관객은 “소급적 독서”를 할 수 있고, 이는 서사 텍스트 전체를 함축적인 의미형성의 메카니즘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화에서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또한 명시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영원히 빨려 들어간 존재는 수목의 요정인 에우리디케이다.

앞서 강 건너기와 스카프 모티브를 통하여 그녀의 탄생이 은유적으로 제시 되었다면, 다음의 해골 사나이는 누구이며 그녀의 고향은? (1:03:52)



'죽음'이다. 죽음의 세계 혹은 '저기' 하늘 에서 '여기 이 땅'으로 도망 온 요정이다.

유리디스의 탄생과 관련된 푸른색 스카프 모티브와 다음 씬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2.2.  
인물의  
죽음과  
암시



유리디스가 하늘과 관련된 영적인 존재로 암시된 영화의 서사구조에서 유리디스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모티브는 하늘의 색깔인 푸른색 스카프였다. 그런데 이 스카프에 그려진 점성술 그림은 오르페가 실종자 서류 보관소 청소부의 안내로 따라간 영매의 집에서 신들린 여인들이 쓰고 있는 머리 수건에도 그려져 있다(1:35:32).

# 수건과 스카프에 그려진 점성술 그림이 의미하는 것, 이를 찢는다는 것은? (1:01:00)



수건은 인간의 영혼인 머리를 감싸고 있다. 따라서 스카프와 수건에 그려진 점성술 그림은 하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인간들의 절대적이며 이상적 가치, 즉 아폴론적 가치를 상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정적인 죽음의 암시, 그리고 아폴론적 가치와 디오니소스적 가치의 갈등은 미라가 유리디스의 스카프를 찢는 쇼트에서 드러난다.

'죽음의 사자'가 죽은 유리디스를 데리고 가는 다음 장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1:21:49)



음향: 사이렌 소리,      장소: 터널 →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화는 시작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유리디스의 운명을 여러 가지 복선을 통하여 암시하고 있었다. 사이렌 음향은 언제 사용되었는가?

2.2.  
인물의  
죽음과  
암시



유리디스가 도시[여기, 이 땅]로 들어올 때/태어날 때 새장과 함께(0:07:26)



영화는 시작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유리디스의 운명을 여러 가지 복선을 통하여 암시하고 있었다. 사이렌 음향은 언제 사용되었는가?

2.2.  
인물의  
죽음과  
암시



카니발 중 군중 사이를 지나가는 경찰 오토바이의 사이렌 소리(1:1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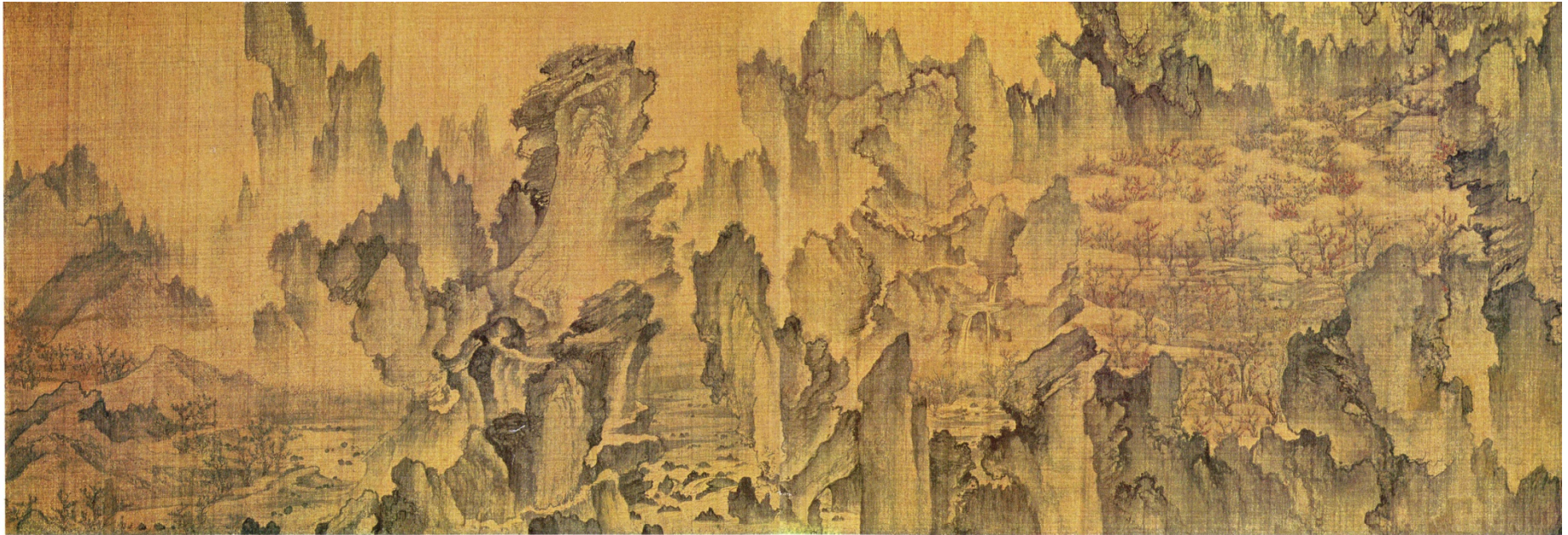
이러한 음향의 배치는 결국 도시[여기, 이 땅]와 카니발[인생]이 모두 죽음과 관련되었음을 의미하는 영화 텍스트의 대용 기능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사이렌 음향이 유리디스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면, 죽음의 장소로 가는 경로가 '터널'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감독 - 작가는 죽은 유리디스를 하필이면 터널을 통과하여 데리고 갈까?

# '터널', '굴'은 무엇을 의미할까?

안견, 몽유도원도, 1447년



고원법



심원법



평원법

그림 보는, 읽는 순서

도처에 이런 복선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장면이 유리디스의 죽음과 관련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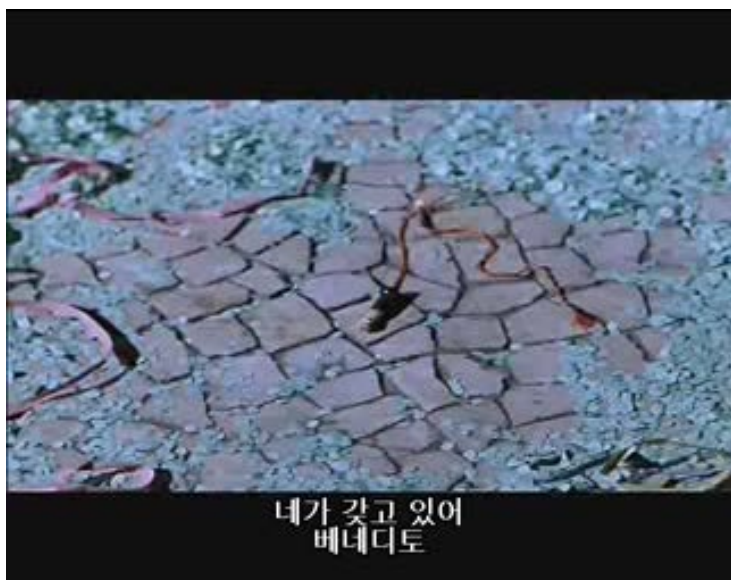
2.2.  
인물의  
죽음과  
암시



카니발의 혼돈 속에서 유리디스는 미라와 '죽음'을 피해 도망할 때, 해골 가면을 쓴 사내가 그녀에게 키스하려 하거나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의상의 사나이들에게 둘러싸이고(1:17:24).

도처에 이런 복선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장면이 유리디스의 죽음과 관련되는 이유는?

2.2.  
인물의  
죽음과  
암시



베네디토가 만들어 준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베네디토가 이를 주우려는 순간 밟혀서 깨어지는 CU 쇼트도 죽음을 암시하는 한 부분을 구성한다. 베네디토의 표정을 보라 (1:14:37).

미라가 던진 돌... 죽은 유리디스를 안고 있던 오르페도 죽는다. 그 특징은? (1:47:15)

2.2.  
인물의  
죽음과  
암시



오프닝의 태양 연 처럼, 오르페도 떨어져 죽는다. 그런데 그들은 절벽 중간의 식물 - 관목에 었힌다. CU로 강조되었다. 그런데 왜 그 장소는 관목일까?

식물(관목)이 유리디스가 죽어서 돌아간 장소라면, 다음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0:48:10)

2.2.  
인물의  
죽음과  
암시



그녀가 수목의 요정인 에우리디케임을 결정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또한 죽음의 사자가 옆에 있는 관목의 가지를 꺾는 장면이 이미 이를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영화는 서사, 영상, 음향 모두를 통하여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녀가 수목의 요정임과 그녀의 죽음이 고향으로의 회귀임을 은유하고 있다.

## 2.3. 인물과 서사의 확장

영화의 등장인물과 신화의 등장인물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주요 등장인물 이외에 영화 고유의 몇몇 등장인물이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그 이름과 캐릭터를 통하여 다음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름 (영화/신화)	영화	신화
오르페/ 오르페우스	가수이며 댄서. 바빌로니아 행진차 운전수. 바빌로니아 마을에 살며 같은 이름의 무용단을 지휘한다.	제우스와 므네모쉬네의 딸들인 아 홉 자매(무사이Mousai, 뮤즈Muse) 중 막내인 칼리오페(현악기의 여신) 와 아폴론(태양의 신, 음악의 신) 사 이에서 출생



<p>유리디스/ 에우리디케</p>	<p>고향 마을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남자를 피해 도망쳐 온 세라피나의 사촌. 오르페와 사랑에 빠진다.</p>	<p>트라키아 지방의 하마드리아스(나무의 요정 Nymph). 오르페우스의 깊은 사랑을 받고 결혼한다.</p>
<p>미라/ 마이ナス</p>	<p>오르페우스의 약혼녀. 낮의 여왕. 시기와 질투가 심하고 폭력적이다. 오르페를 죽인다.</p>	<p>복수형은 마이나데스. 트라키아 지방의 여인들로서. 디오니소스를 따라 미친 듯한 황홀한 상태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등 디오니소스 의식을 행한 ‘미친 여자들’이라는 뜻. 오르페우스를 죽인다.</p>
<p>세라피나/ 세라핀</p>	<p>오르페 옆집에 사는 유리디스의 사촌. 밤의 여왕. 미라로부터 떨어지려는 오르페를 도와준다.</p>	<p>구약. ‘불타는 것’을 의미하는 천상적 존재의 이름. ‘불타는 것’의 상징적 의미는 불을 통하여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천사. 의식의 가장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열정, 정화, 자기동일성, 빛, 계시, 어둠의 소멸 등에 관한 불의 능력을 상징한다.</p>

<p>베네디토/ 작은 양</p>	<p>오르페의 마을에 사는 소년. 유리디스에게 목걸이를 만들어 준다. 카니발에서 유니콘을 쓰고 있다.</p>	<p>점성술의 양 자리.</p>
<p>헤르메스/ 헤르메스</p>	<p>전차 정거장의 감독. 유리디스에게 길을 가리켜준다. 오르페에게 유리디스의 시체를 찾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준다.</p>	<p>제우스와, 아틀라스의 딸인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제우스의 전령이자 죽음의 나라로 영혼을 인도하는 안내자. 길과 여행자를 지키고 행운을 가져다 주며, 도둑과 상인의 수호신(피가 많고 영리하며 교활하다). 에우리디케를 다시 저승으로 인도한다.</p>
<p>‘죽음’(해골 분장 남자)/ 아리스타이 오스</p>	<p>유리디스의 고향 마을에서 그녀를 죽이려고 찾아온 남자. 유리디스가 죽는 전차 차고에는 전기음이 들리는데 이는 꿀벌들이 잉잉거리는 소리와 유사하다.</p>	<p>올림포스 산 기슭의 템페 계곡에서 양을 돌보며 꿀벌을 치는 청년. 다른 요정들과 그곳으로 꽃을 꺾으러 온 에우리디케에게 말을 걸려 쫓아갔고, 결혼한 지 열흘이 못 되는 새색시 에우리디케는 그를 피해 황급히 도망가다 독사에게 물려 죽는다.</p>

병원 청소부/  
카론

병원 12층 실종자서류보관소의 청소부. 긴 빗자루를 들고 있다. 오르페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 없는데 그의 이름을 안다. 오르페를 데리고 어두운 회전계단을 내려간다.

죽은 자를 최후의 집인 하데스로 인도해주는 스틱스 강의 뱃사공. 더럽고 초라하며 신경질적이었으나 위세가 당당한 노인이다. 오르페우스가 산 자임을 알아보고는 그를 돌려치려고 노를 돌려메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고 그를 하데스의 나라로 들여보내어 준다.

케르베/  
케르베로스

오르페우스가 병원의 실종자 서류 보관소 청소부의 안내로 따라간 영매의 집을 지키는 사나운 개. 오르페는 들여보내고, 베네디토는 저지한다.

머리 셋 달린 지옥의 지킴이 개. 주된 역할은 도망을 시도하는 하데스의 나라(죽은 자의 나라) 주민을 붙들어 잡아먹는 일. 죽은 자가 저승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나,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키는 나라에 오는 것은 용인하지 않았다.

영화 속 인물들의 신화적 캐릭터가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영화가 새롭게 도입한 인물(제카, 베네디토, 세라피나)이 오르페우스 서사를 벗어나 점성술이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까지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의 서사가 신화의 오르페우스 서사를 뛰어 넘어 확대되고, 현대적으로 잘 해석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유리디스의 죽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녀의 죽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신화의 서사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를 보면 오르페우스의 운명의 여인들(에우리디케와 마이나데스)은 같은 마을에 살았다.

결혼한 지 열흘이 못되는 에우리디케는 그녀에게 반한 꿀벌치기 아리스타이오스가 말을 걸러 쫓아오자 그녀는 그를 피해 황급히 도망가고, 놀란 독사에게 물려 죽는다.

그녀가 죽는 직접적인 원인은 꿀벌치기 아리스타이오스이자 독사이며, 오르페우스와 결혼한 여자라는 사실은 감추어져 있다.

다음 씬의 연출이 신화와 관련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1:19:17)

2.3.  
인물과  
서사의  
확장



영화는 이 전차 사고 시퀀스의 **효과음**인 전기가 흐르는 소리를 통하여 신화에서의 꿀벌의 잉잉거리는 소리를 암시함으로써 신화의 상황을 표면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은 다양한 영화적 장치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 씬의 연출이 신화와 관련 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2.3.  
인물과  
서사의  
확장



세라피나의 옷을 입고 춤추는 유리디스에게 칭칭 감기는 해골사나이가 던진 종이테이프는 신화에서 에우리디케를 죽이는 뱀의 혀로 은밀하게 환유된다 (1:13:58). 신화의 뱀이 '죽음'과 관련될 수 있는 영화적 장치이다.

# 유리디스가 죽는 직접적인 원인은? (1:21:34).

## 2.3. 인물과 서사의 확장



오르페가 그녀를 찾으러 와서 불을 밝히려고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그녀는 감전되어 죽는다.

# 유리디스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오르페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 2.3. 인물과 서사의 확장



유리디스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르페, 그대가 날 죽였어요"로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1:38: 43)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  
 질투의 화신인 미라도 유리디스를 죽이려 하고, 죽음의 사자도 그녀를 따라 다니지만, 영화는 유리디스의 죽음을 오르페로 인한 운명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록 질투의 화신인 미라도 유리디스를 죽이려 하고, 죽음의 사자도 그녀를 따라 다니지만, 영화는 유리디스의 죽음을 오르페로 인한 운명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오르페우스 서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영화에 새롭게 도입된 인물인 제카와 베네디토, 그리고 세라피나를 통하여 영화의 서사가 또한 확장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제카는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에서 이르러 '새로운 오르페'의 캐릭터를 부여 받는다.

이는 영화 전체의 서사와 메시지 구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다음 씬이 베네디토에게 부여하는 인물의 캐릭터는 무엇일까?



2.3.  
인물과  
서사의  
확장

유니콘이다(1:08:46). 작은 양인 셈이다. 그는 스카프를 통해 유리디스가 말한 그녀와 함께 태어난 점성술의 작은 양이다. 부적으로서 목걸이를 그녀에게 주며, '죽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고 애쓰며, 죽은 그녀를 찾는 오르페를 도우려하고,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영화 전체의 서사와 동일한 문맥을 형성하고 있다.

신화 서사에서 세라피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 속의 세라피나는 유리디스의 사촌 자매로 등장한다. 유리디스와 미라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2.3.  
인물과  
서사의  
확장



반복적으로 미라로부터 오르페를 떼어 놓으려 한다. 이것은? 유리디스의 심리적 욕구를 대신하는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서사 전체와 관련한 다음 씬의 기능은 무엇일까? (0:37:56) :



2.3.  
인물과  
서사의  
확장

주요 등장인물들이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유리디스에게 이들을 소개하는 베네디토의 대사를 통해 영화의 인물 설정을 유추할 수 있다

유리디스와 세라피나는 영화의 표면적 서사에서는 각각 다른 인물이다.

그러나 심층적인 차원에서 이들은 동일인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신화 서사의 영화적 재해석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영화는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설정함으로써 영화 서사의 구체성과 사실성을 확립하며, 영화의 서사를 확장하고 치밀하게 구성하여 극화시킨다.

이들이 신화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